

‘원인’ (cause)과 아동의 공목적어 정보처리

*유정. **조숙환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Cause’ and the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Object Ellipsis by Young Korean-speaking Children

*Jung Ryu. **Sook Whan Cho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Dept of English, So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원인’의 개념과 타동사성에 대한 아동의 민감성이 공대명사 처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었듯이, ‘원인’은 서술부 중심의 어휘정보 이론에서 이용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잠재적으로 함유된 ‘원인’의 정도에 따라 목적어의 생략이 허용된다. 본 연구는 세명의 한국 아동 (0;10-3;7)의 발화 자료를 토대로 한국어의 공대명사화 구조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하였다. 한국어 아동은 습득 초기에는 주로 옛정보, 새정보 등의 담화화용적 제약에 따른 발화를 하지만, 3세경부터는 동사의 습득양상이 점차적으로 다양해지는데, 이때부터는 논항의 생략과 동사의 타동사성과 상호관계를 보인다.

1. 서론

‘공대명사’는 지칭명사 (선행사)의 정보가 담화나 문장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생략되어 발생하는 주어, 목적어 등 논항을 의미한다. 공대명사의 지칭명사 (또는, 선행사) 정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Chomsky (1981) 문법에서는 대명사와 선행사 사이의 문장 구조적인 지배 결속 관계가 중요한 반면, 어휘정보의 의미구조로써 해석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이론에서는 동사의 의미구조가 핵심적이다 (Vendler, 1967; Wierzbicka, 1980; Levin and Hovav, 1992; Levin, 1993; Faber and Uson, 1999). 본 논문에서는 서술어 중심의 분석을 이용하여 서술어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 (cause)과 공대명사, 특히 목적어의 생략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서술부 중심 (predicate-centered)의 공대명사 해석

최근, 여러 언어의 분석 결과 선행사 해석에 대한 서술부의 의미정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영어의 사례로, 다음 (1)을 보기로 하자.

(1) William shaved (Tom/himself).

(2) Tom read (the book).

(1)-(2)에 쓰인 ‘shave’와 ‘read’는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이지만, ‘hit’나 ‘destroy’ 등의 동사와 달리 목적어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의성은 Wierzbicka (1980)와 Levin (1993)의 관점에서는 ‘원인’의 어휘의미구조로, 또한 van Valin (1990)이나 Rispoli (1992)에서는 ‘경험주’ (undergoer)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휘구조적으로 ‘read’나 ‘shave’ 등의 동사는 ‘hit’나 ‘destroy’ 같은 동사와는 달리 ‘원인’의 의미가 없으며, 한편 ‘경험주’의 의미화용적 특수성 (specificity)의 정도에 대해 ‘read’나 ‘shave’ 등의 동사는 다른 타동사와는 달리 극도로 희박한 특수성을 함유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목적어는 ‘원인’이나 ‘특수성’의 정도에 따라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는 (3)-(6)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부의 정보에 의해 다양한 구조의 문법성이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3) 영이는/*나는 박물관에 가더라.

- (4) *레스링선수는 링에서 밀었다.
- (5) 순이는 약수터에서 마셨다.
- (6) 민수는 반성했다/*비판했다.

(3)-(6)의 문장에는 ‘-더라,’ ‘밀다,’ ‘마시다,’ ‘비판하다’ 등의 양태어미 또는 동사가 쓰였다. (3)에 쓰인 동사어미 ‘-더라’는 이미, 장경희 (1985) 등 여러 국어학자들에 의해 규명되었듯이, 반드시 3인칭주어와 같이 쓰여야 한다.

(4)-(5)와 (6)의 문법성은 각각 동사에 함유되어 있는 ‘원인’과 ‘재귀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밀다’와 ‘마시다’는 행동, 과정, 사건, 상태 등의 의미에 연루되어 있는 ‘원인’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핵심동사 (core verb), 비핵심동사 (peripheral verb)로 분류되는데, 영어, 한국어 등 여러 언어의 동사 분포를 보면 ‘원인’의 개념이 능후한 핵심동사는 반드시 목적어와 같이 쓰여야 하는 반면, 비핵심동사는 목적어의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6)의 ‘반성하다’와 ‘비판하다’는 동사의 ‘재귀성’ 개념과 관련이 있다. 재귀성이 강한 ‘반성하다’와 같은 심리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재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비판하다’는 목적어의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도약 (bootstrapping) 가설

최근, 동사의 의미습득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으로서 의미, 통사, 화용 도약 등 세 가지 가설이 있다.

3.1. 의미 도약 가설

Pinker (1989)의 의미구조가설에 의하면 서술어의 의미표상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선형적인 의미자질 (예: 운동방법, 원인제공 방법 및 제어 등)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동은 언어 정보를 처리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가령 동사를 듣게 되면, 그 동사가 쓰인 담화맥락을 검토하면서 의미자질을 한정시킨다. 이 가설에서 아동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제한된 의미자질을 토대로 동사의 자질을 검토한다.

3.2. 통사도약 가설

Gleitman (1990)은 동사의 논항구조를 이용한 통사적 도약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은 의하면, 아동은 의미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통사 구조에 민감한 상태에서 동사의 의미를 처리하고 습득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동사와 동사가 쓰인 비언어적 맥락 간에 일대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령, 동사 ‘마시다’가 쓰인 비언어적 문맥요소로서 마시고 있는 우유, 마시고 있는 사람, 마시고 있는 사람의 여러 행동양상 (예: 책읽기, 걸어가기, 영화보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의미 중 ‘마시다’의 의미와 직접적인 일대일의 관계를 가진 요소가 무엇인지 모호한 환경적 요인이 지나치게 많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통사도약 가설은 동사의 논항구조를 토대로 습득이론을 주창하는데, 가령 ‘put’과 ‘eat’의 의미의 경우, 각각 선형적으로 주어진 (7)-(8)의 논항 구조가 발현되면서 습득된다고 가정한다.

(7) *put*: ___ NP PP

(8) *eat*: ___ (NP)

3.3. 화용 도약 가설

화용 도약 가설은 Tomasello (1999), Snow (1999)에 자주 거론된다. 이 가설은 언어영역 특수적인 지식은 인정하는 한편, 의미도약 가설, 통사 도약가설과는 대조적으로 언어지식의 선형성에 회의를 표명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아동의 동사 의미 습득은 사회 화용적인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 가령, ‘먹다’의 의미는 ‘음식’의 정보가 담화맥락적으로 얼마나 제한적인지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먹다’의 경험주인 목적어의 생략 여부가 결정된다. 가령, 다음 (9)의 아동 (2;11) 대 성인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담화상 어휘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목적어가 생략된 현상이 관찰된다 (Rispoli, 1992, p. 586).

(8) 아동: Goldilock have that spoon.

성인: Goldilock.

아동: That's the mother's.

성인: Now what.

아동: I don't know.

성인: You don't know?

아동: her wanna eat.

4. ‘원인’과 공목적어의 처리와 습득

4.1 성인자료

한국어의 공목적어가 실제담화에서 어떤 양상

과 빈도를 보이는데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한편, 이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조숙환 외 (2001)의 사전 연구에서는 핵심동사와 비핵심동사의 분포가 매우 대조적인 것을 관찰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조응현상이 실제 담화에서 어떤 양상을 띠는지 조사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 대본 2회분, 드라마 녹화자료 3회분 (각각 60분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분포를 발견하였다. 즉, 핵심동사가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대다수의 경우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82%), 비핵심동사의 경우에는 핵심동사에 비해 목적어의 생략이 훨씬 더 빈번함을 관찰하였다 (18% vs. 59%). (이 결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숙환 외 (2001)을 참조할 것.)

4.2 정보의 최신효과

공대명사 중 특히 공주어에 대한 구정보 (old information) 및 신정보 (new information)의 분포 연구는 사전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다. Cho (2001)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말 326 문장을 분석한 결과, 공주어의 99% 이상이 구정보를 지칭했으며, 명시적 주어로 표현된 발화의 구정보, 신정보의 분포는 각각 65%, 35%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아동 (2;0-3;0, 총 발화 수, 각각 1962, 2421)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구정보가 공주어와 명시적 주어로 표현된 발화 빈도는 각각 평균 80%, 20%로서 구정보가 압도적으로 공주어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정보는 구정보와는 대조적으로 평균 80% 이상 명시적 주어로 표현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어의 발화와 관련하여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서서히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

4.3. '원인'과 공목적어 처리 및 습득

본 연구는 현재까지 두 아동의 (1;8-3;0) 자연 발화 데이터 중 약 1000개의 문장을 분석한 결과 '원인'과 공목적어의 처리 및 습득이 다음과 같은 발달단계를 밟는 것으로 잠정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한국아동은 습득초기에 같은 구정보에 대한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담화맥락 속에서 주어, 목적어를 적절히 생략하지 못한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발화는 가령, 다음의 (9)의 예에서 관찰할 수 있다.

- (9) 동주 (2;2): 엄마, *아빠* 미끄럼.
 엄마: *아빠*가 미끄럼 타는거야,
 이거?
 동주: *아빠* 미끄럼 대. ('대'='타는거야')
 ...
 엄마: 여기 *나무*가 어딴어? 나무.
 동주: *나무* 여겼다.
 엄마: *나무* 여겼다.
 동주: *나무*, *나무* 있다.

(9)에서 '동주'는 이미 주제화되어 있는 '아빠,' '나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으로 발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둘째, 구정보 및 신정보에 대한 민감성은 아동들 간에 개인차가 있는 것 같다. 두 명의 다른 아동은 만 2세가 지나자마자 구정보와 신정보를 각각 공주어와 명시적 주어로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0)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 (10) 준규 (2;0): *집짓기*.
 엄마: 어디?
 준규: 요겼다.
 엄마: 아니야.
 준규: 요겼다. 요기.

(10)의 아동은 주제화되어 있는 '집짓기'를 적절히 생략하여 대화를 잇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셋째, 공목적어의 타동사성, '원인'의 상호관계는 만3세 가량부터 점차적으로 습득되는 것 같다. '원인'의 여부에 의해 나뉘어 지는 타동사성을 습득하기 전에 한국아동은 무엇 보다도 소위 경동사 (light verb)라고 하는 '-하다'를 먼저 습득하는 것 같다. 경동사의 형태 중, 만 2세경, 습득 초기에 자주 발견되는 아동의 경동사 구문은 다음과 같다.

- (11) 가. 치약해자. (주: '이 닭자')

- 나. strawberry 하자. (주: ‘딸기로 주스만들자’)
 다. 빵 하자. (주: ‘총 쏘자’)

(11)과 같은 구조에 있는 동사를 보면, 주로 비핵심동사로서 목적어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가 같은 성격의 유형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가령, 아들은 다음 (12)와 같은 발화는 하지 않았다.

- (12) 가. *학교 했다. (‘학교에 갔다’)
 나. *사과 하자. (‘사과 짜르자’)
 다. *책 했다. (‘책 찢었다’)

(11)에 쓰인 공목적어와 동사의 관계를 보면, (11)의 경우와는 달리, ‘원인’의 의미가 개입되거나 ((12나)-(12다)의 경우), (12가)의 ‘가다’의 경우와 같이 동사만으로는 논항의 정보를 추측할 수 없는 경우이다. 아동의 발화에서 관찰된 (11)과 (12)의 대조는 아동의 타동사성에 대한 민감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타동사성에 대한 민감성이 점차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이 제안은 앞으로 약 700개 정도의 발화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본 학회 개최일에 분석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목적어의 생략 현상이 타동사성에 내포되어 있는 ‘원인’의 개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타동사성이 목적어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의 관계를 토대로 발달된다면, 본 연구의 자료는 Pinker (1989)의 의미도약가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논문.
 조숙환. 박은혜. 윤홍옥. 2001. 공주어와 공목적어의 비대칭: 통사, 화용적 제약 및 추론의 역할. *어학연구회 논문요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70-73.

Cho, Sook Whan. 2001. Subjectless sentences spoken by young children in Korean. Qualifying Paper. Harvard University.
 Faber, Pamela B. & Uson, Ricardo Mairal. 1999. *Constructing a lexicon of English verbs*. Berlin: Mouton de Bruyter.
 Levin, Beth and Pinker, Steven (Eds.). 1992. *Lexical & conceptual semantics*. Elsevier.
 Levin, Beth and Hovav, Malka Rappaport. 1992. Wiping the slate clean: A lexical semantic exploration. In Levin & Pinker (Eds.).
 Pinker, Steven.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Cambridge: MIT Press.
 Rispoli, Matthew. 1992. Discourse and the acquisition of eat. *Journal of Child Language* 19, 581-595.
 Snow, Catherine. 1999. Social perspectives on the emergence of language. Brian MacWhinney (Ed.), *The emergence of language* (pp. 25-276). Mahwah: Lawrence Associates, Publishers.
 Tomasello, Michael. 1999. *The cultural origins of human cogn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ierzbicka, Anna. 1980. *Lingua Mentalis*. New York: Academic Press.